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2019년 6월 28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27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19. 6. 27. (총 3쪽)	담당부서	양돈과		
담당과장	문홍길 과장 (063-580-3440)	담 당 자	김두완 연구사 (041-580-3455)		

여름철, 돼지의 위 건강을 지키려면?

- 사료 입자 거칠게 갈아 먹이고 시원한 물 충분히 줘야 -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의 위궤양 예방법을 소개하고 농가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.
 - 돼지 위궤양은 3개월~6개월인 비육돈에서 주로 나타난다.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.
- 더위 스트레스로 사료 먹는 양과 물 마시는 양이 줄면 위궤양이 쉽게 발생한다.
 - 입자가 고운 사료와 펠렛¹⁾ 형태의 먹이는 위장의 내용물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위산 분비를 늘리고 펩신²⁾ 활성을 높인다. 이로 인해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짧아지고 식도나 위궤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.
 - 위궤양에 걸리면 창백, 허약, 식욕부진 같은 빈혈 증세가 나타나고, 일반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낮다. 위 출혈에 의해 암흑색조의 변이 관찰될 수 있다.
- 돼지의 위궤양을 예방하려면 더위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.

1) 사료원료나 배합된 가루사료를 사전 수열처리 후 특정형태로 성형해 가공한 사료
 2) 동물의 위액에 포함된 소화 효소

사료의 종류와 가공 형태를 조절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준다.

- 입자가 너무 곱거나 분진이 많은 가공사료는 피하고 알곡이 있거나 다소 거칠게 분쇄한 사료를 준다.
- 급수라인과 수압, 급수기(니플)는 수시로 확인하고 돼지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.
 -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위출혈이나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, 사료 섭취량도 늘릴 수 있다.
- 사육 공간을 넓게 확보해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을 포함한 품질이 좋은 사료를 먹인다.
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양돈과장은 “돼지 위궤양은 모든 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원인과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【참고자료】 여름철 돼지 위궤양 원인 및 예방법





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
 농촌진흥청 양돈과 김두완 농업연구사 ☎ 041-580-3455에게
 연락 바랍니다.

【참고자료】

여름철 돼지 위궤양 원인 및 예방법

■ 위궤양이란?

- 식도구점막과 위의 연결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점막의 궤양
- 도축시 비정상적인 위장이 발생된 돼지의 비율은 30~50%정도
- 주로 3~6개월령에 많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폐사

■ 원인 : 여러 가지 사료와 환경적 스트레스

-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 및 사료 섭취량 감소
- 입자도가 낮은 가루사료와 펠렛 사료의 섭취
: 소화물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소화 시간 단축
- 궤양 발생 저감 원료 : 보리
- 궤양 발생 유발 원료 : 밀
- 여름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오용하는 해열 사료 첨가제

■ 증상

- 궤양성 병변으로 인한 혈액손실
- 위 출혈에 의한 암흑색조의 변
- 정상보다 낮은 체온
- 식도구점막의 비후된 상피는 담즙으로 인해 녹색색
- 거칠고 주름진 표면은 쉽게 떨어짐
- 궤양이 식도구점막 전체에 생기면 분화구와 같은 형상이 나타남

■ 예방법

- 여름철에는 거친 입자의 사료를 급여
- 급수라인·수압 니플(급수기) 등을 점검해 물 부족으로 인한 위출혈
이나 방광염 발생을 최소화
- 스트레스 저감 (사육 공간 넓게 확보)
- 비타민E 및 셀레늄 보충